

보험료 더 내는 중장년층 “연금 사각지대 내몰리나”

‘정부 개혁안’ 세대간 형평성 논란 50대, 보험료를 13% 도달시기 빨라 기업 부담 가중에 고용불안 우려도 지역가입자 “더 낸다면 납부 포기”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세대별 인상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층과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받는 돈은 줄어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10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연장하고 세대별 보험료를 인상 차등화,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중장년층에게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타 연령층보다 빠르게 13% 보험료율에 도달하게 돼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사를 나와 보험료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실제 연금개혁안은 50대(1966~1975년생)는 1%p씩, 40대는 0.5%포인트씩, 30대는 0.33%포인트씩, 20대(1996~2007년생)는 0.2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오르도록 차이를 뒀다. 13%까지 도달하는 데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지난해 기준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286만원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인상되면 25만7400원이던 보험료가 37만1800원으로 오른다.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각각 6만7200원의 인상분을 부담하게 된다.

50대 직장인 박모씨는 “세대별 차등 적용은 들어본 적도 없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과 부담을 해소하

고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앞둔 중장년층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며 “전 국민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27년 만의 개혁이라면 각계 각층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 6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20년 미만은 220만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465명이며 10년 미만 가입자는 207만8798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의 30.8%가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

한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납부예외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등 영업 부진이 심각한 와중에 보험료를 인상 부담까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잡화점에서 만난 50대 이모씨는 “직장인처럼 정기 소득이 있거나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내는 것도 아니니 보험료가 인상되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가득이나 벌어도 좋지 않은 상황에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포기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인한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부 김영미(59)씨는 “지금은 직장 생활을 쉬고 있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상태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지만, 지출 부담 등으로 인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며 “중장년층만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른다면 고용주 입장에서 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하니 40~50대 고용을 꺼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중선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은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및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성장률·저출생·고령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이자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이다”며 “보험료 부담이 높은 지역가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논의와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최소가입기간 미달 대상자를 선별해 안내문을 보내는 등 취약계층이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층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테크노파크가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AI앰블런스 적용 시범사업의 기술시연회를 개최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광주테크노파크, ‘AI 앰블런스’ 기술시연회

지역 전역 적용 시범사업 추진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AI앰블런스 적용 시범사업(이하 AI앰블런스 사업)의 기술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앰블런스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 설명, 응급환자의 발생에서부터 지역 응급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시나리오 및 119 구급차 장비 실제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광주시 AI반도체과 광주소방본부를 비롯 사업운영기관인 연세대 산학협력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의료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자리를 통해 광주형 응급의료환경에 적용할 기술을 소개했으며 추후 지역형 이송 지침과도 원활히 연계할 예정이다.

AI앰블런스 사업은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공모사업에 광주테크노파크가 선정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광주지역 내 AI앰블런스 보급 △AI 진단솔루션 보급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소개소·운영 △의료 인재 양성 △의료

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구축 △시민의료 APP 구축 △의료데이터 활용 기업지원 사업 등 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 및 선진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앰블런스 사업은 광주소방본부 관할 119 구급차와 의료기관에 AI시스템을 구축, 병원-구급차 간 현장 상황을 공유해 중증도 분류, 응급실 포화도 분석에 따라 최적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급차에는 영상 및 음성 수집장치가 탑재돼 구급대원은 자동으로 기록되는 구급일지 덕분에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구급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착 전 최적의 치료 계획이 준비돼 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광주 AI앰블런스 사업은 소방청에서 올해 2월 전국 구급차에 도입한 새로운 시스템인 스마트119시스템과 pre-KTAS와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형 의료 체계 구축에 한발 앞선 모습을 보였다.

김영집 원장은 “AI앰블런스 적용 시범 사업을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최적의 응급대응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소액거래·영리법인 이전거래 가능

광주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서 외환 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실시는 기존부터 가능했던 해외 무역송금 거래에 추가하여 미화 5000불 이하 소액거래와 영리법인(개인 사업자 포함)의 이전거래(연간 미화 10

만불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인터넷뱅킹 내 해당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0시10분부터 밤 12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거래신청 시 익영업일 처리됨)이며, 이용 고객에게는 주요 통화(USD, JPY, EUR) 50% 환율우대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광주은행 외환거래를 이용

하는 기업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관련 문의는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기아, ‘워즈오토-10대 엔진’ 동시수상

현대차·기아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에 탑재된 동력시스템이 3년 연속 ‘워즈오토(WardsAuto)’ 최고 10대 엔진에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10일 현대차 아이오닉 5N과 기아 EV9 GT-라인(EV9)의 동력시스템이 워즈오토가 선정하는 ‘2024 워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시스템’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워즈오토가 1995년부터 매년 선정해 온 ‘10대 엔진’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로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

릴 만큼 권위를 인정받는다. 파워트레인 분야에서 전동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워즈오토 측은 2019년부터 수상 명칭을 ‘최고 10대 엔진’에서 ‘최고 10대 엔진 및 동력시스템’으로 변경했다.

30회 째를 맞는 올해 결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신차에 탑재된 34개 파워트레인을 대상으로 워즈오토 심사위원단이 성능과 효율,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0개의 파워트레인을 선정했다.

최고 10대 엔진으로 선정된 아이오닉 5N과 EV9의 동력시스템은 우수한 주행 성능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첨단 주

행 관련 기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오닉 5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마력,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고 출력과 770Nm(78.5kgf·m,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대 토크를 낸다.

84.0kWh의 고효율 배터리와 고성능 EV 특화 열관리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 N 전용 기술들을 적용해 압도적인 주행 성능도 갖췄다.

EV9은 99.8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501km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하며, 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V2L 등 혁신적인 전동화 사양은 물론 탑승객을 위한 여유 공간과 다양한 2열 시트 옵션을 갖췄다. 박소영 기자

‘성과급 500%+1800만원’... 기아, 임단협 잠정합의

기아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0일 기아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전날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임단협 9차 본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차 업계에선 기아 노조가 회사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보상을 받아냈다고 평가한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 2000원 인상(호봉등급 포함) △경영상 성과급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

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기아 노사는 2025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는데 합의했다.

기아 관계자는 “생산체계 개편으로 국내 고용 인력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내 오토랜드 고용 안정과 중장기적 미래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아 노사는 국내 오토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미래차 핵심 부품 내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생산거점의 생산물량 및 라인업 최적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 공동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비롯한 기후 변화 극복 노력 및 부품사 상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12일 진행된다. 박소영 기자